





**A** 춤추는 군중 0과 1의 언어로 그린 줄리안 오피의 상형문자.



조각과 회화를 아우르는 런던 출신의 후기 모더니즘 작가 줄리안 오피의 개인전이 3월 23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국내에 선보이는 오피의 두 번째 개인전은 비닐 페인팅과 LED 패널뿐 아니라 대형 신작 조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매체들로 이뤄져 있다. 언제나 개념과 미가 엄격하게 조합된 예술적 탐구의 결과물을 선사하는 오피의 작품 세계는 평범한 일상과 오브제를 일깨운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해 일러스트레이션과 애니메이션 사이를 관통하는 작품들도 선보였다. 표정을 묘사하는 이목구비 없이도 인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궁금하다면 줄리안 오피의 전시를 권한다. 무심하게 걷고 있는 거리 위 사람들을 보면서 낯선 이들과 뒤섞여 추는 춤을 떠올리는, 작가의 심미안을 엿볼 수 있다.



- 1 'Walking in Sinsa-dong 2' 2014. 2 'Walking in Sinsa-dong 3' 2014.  
3 'Julian' 2012, Courtesy, Alan Cristea(UK).